

협회소식

본회,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가을 꽃 돼지 축제” 개최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결의대회도 개최

본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10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천시 소재 한국마사회 서울 경마공원에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가을 꽃돼지 축제”를 개최했다.

국내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홍보 행사인 이번 행사에서는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자 무료 시식회, 120m 돈까스 만들기, 오정미 요리 퍼포먼스, 꽃돼지 조각전, 미니돼지 전시회, 예쁜 돼지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 통돼지 바베큐 시식, 돼지 부위 과녁 맞추기 이벤트 등 소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축제 및 이벤트가 풍성하게 진행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변화하는 시장과 제도에 양돈인들 스스로 대처하기 위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박사가 ‘한국양돈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어 양돈농가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본회는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를 서울 난지 캠핑장에서 한국마사회로 장소를 변경해 개최했다.

본회 회장단 등 임원 TV 홍보비 모금에 앞장

- 하반기 돈기안정 위해 10월부터 2개월간 TV 광고 추진

본회는 최근 경기침체로 하락한 돈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하반기 비수기의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통한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부 지원아래 농협과 공동으로 10월 1일부터 돼지고기 소비촉진 TV홍보를 실시키로 하고, TV 홍보비 등 협찬금 모금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회는 지난 9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김건태 회장을 비롯, 김동환·이병모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회장 300만원을 비롯, 부회장 200만원, 이사 100만원 등 총 3천7백만원의 TV 홍보비를 모금키로 하는 등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지난 9월 1일과 25일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 조합·업체 등에게도 TV 홍보비 등 협찬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TV 홍보는 본회가 모금한 홍보비 등 협찬금과 농림부 지원금 등 총 8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집중 방영되어 하반기 돈

가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본회,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 캠페인 전개

- 10월 1일부터 3달간 축산신문사와 공동으로 추진

본회는 겨울철을 맞아 불우이웃을 돋는 한편, 최근 하락한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 캠페인을 2001년, 2002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개키로 했다.

본회와 축산신문이 주관하고,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달간 실시된다.

본회는 이번 모금 운동을 통해 축산인들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고아,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을 돋고 경제 침체에 따른 돈가 하락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모금 운동은 1구좌 2만원을 기본으로 모금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금된 성금으로는 돼지고기 안심·등심·뒷다리살 부위 등 수출부위를 구입, 연말에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게 된다.

2003년도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착수

- 본회·농림부 주관, 농협중앙회 협조

본회는 농림부와 공동으로 농협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2001년도에 이어 2003년도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전체 돼지사육두수의 90%를 차지하는 500두 이상 양돈농가가 대상

이 된다.

본회는 이번 전업규모 양돈농가의 다양한 사육·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지난 2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해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체 15천 호 양돈농가의 34%를 점유하는 500두 이상 양돈농가 5,194호(사육두수 8,350두-전체 돼지 사육두수 90%점유)에 대해 일반사항(성별, 나이, 교육, 양돈업 종사기간 등), 생산현황(사육시설, 사육·출하두수, 사육능력 등), 생산성적(모돈연간이유두수, 모돈교체비율, 복당 산자수 등), 경영현황(경영형태, 출하형태, 향후 사육규모 계획, 생산비, 사료비 등), 기타 정보화 현황, 정부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자조금·등록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본회는 조사농가에 대한 사전 홍보와 함께 경영실태조사표 및 OMR 카드 등 인쇄물을 각 지부에 발송해 조사하게 되며, 지부가 없는 시·군지역은 지역의 농·축협과 협조해 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양돈업 등록시 특별자금 설치 등 지원대책 마련돼야

- 본회,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 9월 17일 양돈농가의 경우 오는 2004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제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 등과 관련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본회는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2004년도 축산발전기금에서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로 지원하는 계획과 관련, 양돈농가의

현재 부채와 연계하여 대출을 실시한다면 기존 채무관계로 담보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동 지원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자금 설치, 초 최저금리 적용 등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무허가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 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건축법상의 제재 등을 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 정부의 특별조치법 시행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무허가 축사 소유 양돈인들의 범법자 양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돈업 미등록 등 축산법 제45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양돈농가의 등록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분을 삭제 해 줄 것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 TGE+Rota 혼합백신 변경지원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각 시·도에 통보

본회가 지난 10월 15일 농림부에 TGE 백신을 PED 백신으로 변경·지원해 줄 것에 대해 건의를 한 것에 대해 농림부는 TGE 단일백신을 TGE+Rota 혼합백신으로 변경해 지원키로 하고, 각 시·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보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회가 지난 1월 21일 TGE 단일백신을 TGE+Rota 혼합백신 또는 PED 백신으로

변경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었으며, 이에 농림부는 각 시·도 및 수의과학검역원의 의견 수렴 및 각종 민원을 검토한 결과 TGE 발생시 피해의 심각성 및 농가의 편의를 고려하여 PED 단일백신이 아닌 TGE+Rota 혼합백신으로 변경하여 지원키로 결정하고, 정책에 이미 반영하여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PED 백신이나, 돼지콜레라+돈단독 혼합백신 등 농가의 선호에 따라 접종하는 예방약은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농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율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대의원 선거활동 돌입

- 전국 112개 선출구 확정, 선출 대의원수 200명

양돈자조활동자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김건태, 송건섭)는 지난 10월 13일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대의원 선거 공고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양돈자조금을 시행하기 위한 대의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으며 첫 번째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전체 양돈농가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거나 전체 사육두수의 2/3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참여해야 한다. 선거 일시는 오는 11월 12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효투표수가 미달될 경우 다음날로 연장된다.

한편 위원회는 전국 112개 선출구에서 200명의 대의원을 뽑기로 하고 지난 10월 14~16일 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양돈농가들은 10월 14~11월 11일 선거인 명

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부에서 누락된 농가는 가축 사육확인서를 첨부해 선출구별 선거 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선출구에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도 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수를 확보해야 대의원 선출이 인정된다. 대의원이 선출되면 11월 말 대의원회 개최, 12월 초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공동준비위원회의 계획이다.

본회, 2003년도 제4차 긴급이사회 및 도협의회 개최

본회는 지난 10월 1일 김건태 회장을 비롯 18명의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3년도 제4차 긴급이사회 및 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들은 양돈자조금 설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과 TV 홍보비 모금활동 및 이웃 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 전개, 2003년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심포지엄 개최, 돼지고기 소비촉진 TV 광고 방역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국 양돈인 대회를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꽃돼지 축제”로의 변경(안)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2003년도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계획에 관하여는 농가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명, 주민번호 기재사항 삭제 등 농림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경남지역 백신 긴급 접종을 요청키로 하였으며, 의무자조금 선거와 관련 이사회에서 공식

적으로 농림부, 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 제도 시행의 어려움 및 무투표 인정 등을 요청토록 했다. 한편 TV 홍보비 및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에 회장단, 이사, 도협의회장 등은 자율적으로 성금 납부와 서명을 실시했다.

본회, 제1차 양돈분뇨처리대책위원회 개최

- 환경규제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자구대책 절실

향후 축산환경에 관한 제반여건이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분뇨처리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난 9월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양돈분뇨처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분뇨처리에 대한 방법과 처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광호 환경부 생활오수과 사무관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규제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농가들의 자구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종국 이천지부장은 “오수처리 시설·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농가들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돈가 하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오수처리 시설 등의 신기술 개발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고 규모의 전업양돈농가들에게도 지역의 분뇨처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본회는 추후 양돈분뇨처리대책위원회를 통해 양돈분뇨처리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악취방지법·가축분뇨자원화 촉진법 등 대

응·추진방안 마련, 연구사업 과제 선정 및 의뢰, 우수 사례 보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새로 구성된 양돈분뇨처리대책위원회에는 본회 김동환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영근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박광호 환경부 생활오수과 사무관, 최홍립 서울대 동물자원과 교수, 이명규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양창범 축산기술연구소 축산환경과장, 박제균 농협중앙회 시설환경팀장, 강원구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기획위원, 윤태한 도드람양돈농협 차장, 이광우 본회 경기도 협의회 회장, 최희태 본회 전남도협의회 회장, 김성곤 본회 경북도협의회 회장, 정종국 본회 이천지부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서울 농협 축산물공판장 평균가격 발표방법 변경

본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서울 농협축산물공판장의 돼지도체등급 평균가격을 A~C 등급의 평균가격으로 발표했다.

서울 농협축산물공판장의 경락단가는 가격 등락폭이 심하고 시장 접유비중의 급락으로 대표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비규격돈 및 위축돈이 집중 출하됨에 따라 비육돈 가격에 비규격돈 및 위축돈의 가격이 포함되어 전국 13개 도매시장의 평균가격과 많은 차이가 발생해 양돈농가 대부분이 전국 평균가격 대비 상대적인 손실을 입고 있었다.

이에 본회는 지난 9월 3일 서울 농협축산물공판장의 평균가격을 비규격돈 및 위축돈이 제외된 안정된 가격을 발표해 줄 것을 농림부와 서울 농협축산물공판장에 요청한 결과, 서

울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등급구간별 평균가격을 별도로 발표함에 따라, 본회는 21일부터 서울 농협축산물공판장의 돼지도체등급 평균가격을 A~C등급의 평균가격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10월 14일 미트저널, 한국정보문화 등 시세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0개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양돈농가와 업체간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서울 농협축산물공판장의 평균가격을 A~C 등급의 평균가격으로 변경·발표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등 4개 축산단체, 박영인 회장에 감사패 전달

- 사료곡률 안정적 공급 등 한국 축산업 발전 공 기려



본회(회장 김건태), 한국나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 등 4개 축산단체는 지난 9월 19일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홀에서 미국곡물협회 박영인 한국회장에게 그동안 한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애쓴 공을 기리고자 감사패를 공동명의로 전달했다.

박영인 회장은 1972년부터 31년간 미국곡물 협회 한국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제조 기술 보급에 크게 기여하는 등 그 동안 국내 축산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제1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70만원

지난 9월 22일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부(경기 이천) 제229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70만78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5두를 비롯 총 128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는 수컷 평균 낙찰가는 72만3,913원(92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64만1,667원(36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호박종돈(대표 김창환)듀록 수컷(선발지수 271점) 슈퍼돈이 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소재 당진 AI센타 이제만씨에게 최고가인 240만원에 낙찰됐다.

제2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78만원

지난 10월 10일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58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78만8,26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2두를 비롯 총 121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는 수컷 평균 낙찰가는 86만7,634원(93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2만4,643원(28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성현농장 듀록 수컷(선발지수 257점)이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390-1번지 박삼곤(김해 AI센터)씨에게 최고가인 3백50만

원에 낙찰됐다.

본회 인사발령



본회는 지난 9월 29일 제2검정소 홍성광 차장을 제2검정소 소장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홍성광 소장직무대행은 지난 91년 본회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검정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경남도협, 분뇨탱크설치보조금 상향 조정 건의키로

경남도협의회(회장 이용모)는 지난 10월 13일 부경양돈조합 3층 회의실에서 본회 김동환·최영렬 부회장, 최상백 고문, 신태식, 한영섭 전·현 부경양돈조합장, 이용모 도협의회장 및 경남지역 15개 시군지부장,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축산업 등록제 등 법·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축산업 등록제 도입과 관련한 충분한 보충 설명을 통해 농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축분비료유통센터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재 분뇨탱크(200톤) 설치시 1천5백만원 지원을 현실적 수준에 맞게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충북도협, 축산국 폐지 관련 강력 대응키로

충북도협의회(회장 김원형)는 지난 10월 14일 충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본회 김건태 회장, 김동환·최영렬 부회장, 김원형 도협의회장 및 충북지역 8개 지부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양돈자조금 설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적으로 자조금제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지역의 위탁농장의 참여 등 농가마다 방문해 지속적인 독려를 하기로 했다. 한편 기타 사항으로 축산국 폐지와 관련해 도협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폐지 반대를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협,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가을 꽂돼지 축제” 적극 동참키로

경기도협의회(회장 : 이광우)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정기 도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을 논의했다.

본회 김건태 회장을 비롯 김동화 부회장, 이광우 도협의회장 및 경기지역 지부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가을꽃돼지 축제”(양돈인 대회), 양돈자조금 설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2003년도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 등 최근 양돈산업 및 협회의 주요 현안 및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비자와 함께 하는 가을꽃돼지 축제”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으며, 양돈자조금제도 준비와 관련해 각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업등록제, 친환경직불제 등 최근 시행되는 법 제도가 양돈농가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도 당부했다.

전북도협, 자조금사업 위해 적극 노력 결의

전북도협의회(회장 송정기)는 지난 10월 7일 전북도협의회 사무실에서 본회 김건태 회장, 김동환·최영렬·황금영 부회장과 전북지역 지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업 등록제, 친환경 직불제, 오분법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등 최근 법제도 동향 및 2003년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심포지엄 개최, 양돈분뇨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등 협회 주요 추진사업 및 동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조금 준비와 관련한 사항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자조금 사업이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안성지부,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 교육 실시

본회 안성지부(지부장 김상수)는 지난 9월 26일 안성농업기술센터에서 3/4분기 정기회의 및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성지역 120여 양돈농가 및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방역교육에서는 김준영 수의사의 ‘가축질병 및 하반기 양돈시세 전망’과 서상교 경기도축산위생연

구소 방역과장의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 대책’ 등의 방역교육이 있었으며, 교육후 안성시지부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안성지부는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2003’ 개최에 즈음하여 축제기간중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안성시 종합운동장에서 지부 부인회를 중심으로 3일동안 돼지고기 소비촉진 무료 시식회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안성지부는 지난 10월 15일 지부사무실에서 임원 및 이사회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 임원 및 이사들은 자조금 대의원 선거문제, 돼지고기 소비홍보 축제 및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결의대회 참석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외에 2004년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했다.

서남지부, 재해·재난 피해위로금 등 지원

본회 서남지부(지부장 이윤화)는 최근 불우이웃돕기 행사와 태풍피해 및 화재피해 농가에 대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지원했다.

서남지부는 지난 9월 8일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 관내 치매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2개소를 방문하고, 돼지고기 405kg을 전달했으며, 9월 2일에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소재 명신농장(대표 : 김봉은, 피해액 1억 4천3백만원)에 20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한편 9월 12일에는 제 14호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 대포동 김창운씨 등 11농가에 396만원의 위로금도 전달했다.

서남지부는 이외에도 KBS 제주방송국에 50만 원의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는 등 회원농가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예천지부, 수출부위 시식회 개최

예천지부(지부장 지용오)는 지난 10월16일 예천군민체전 장소인 예천군 공설운동장에서 예천군과 예천축협의 후원을 받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촉진 및 흥보행사를 개최했다.

신임 양주지부장에 조윤상씨



양주지부는 지난 10월 1일 지부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김영석 전 지부장이 농장사업 확대 등

조윤상 양주지부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조윤상씨를 신임 양주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양주지부장으로 선출된 조윤상씨는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에서 돼지 13,000두 규모의 광남 농본축산단지 영농조합 대표를 맡아 일해오고 있다.

순창지부, 팩스번호 변경

순창지부(지부장 : 김동필)는 최근 지부 팩스번호를 변경했다.

FAX : 063-653-9996 **양동**